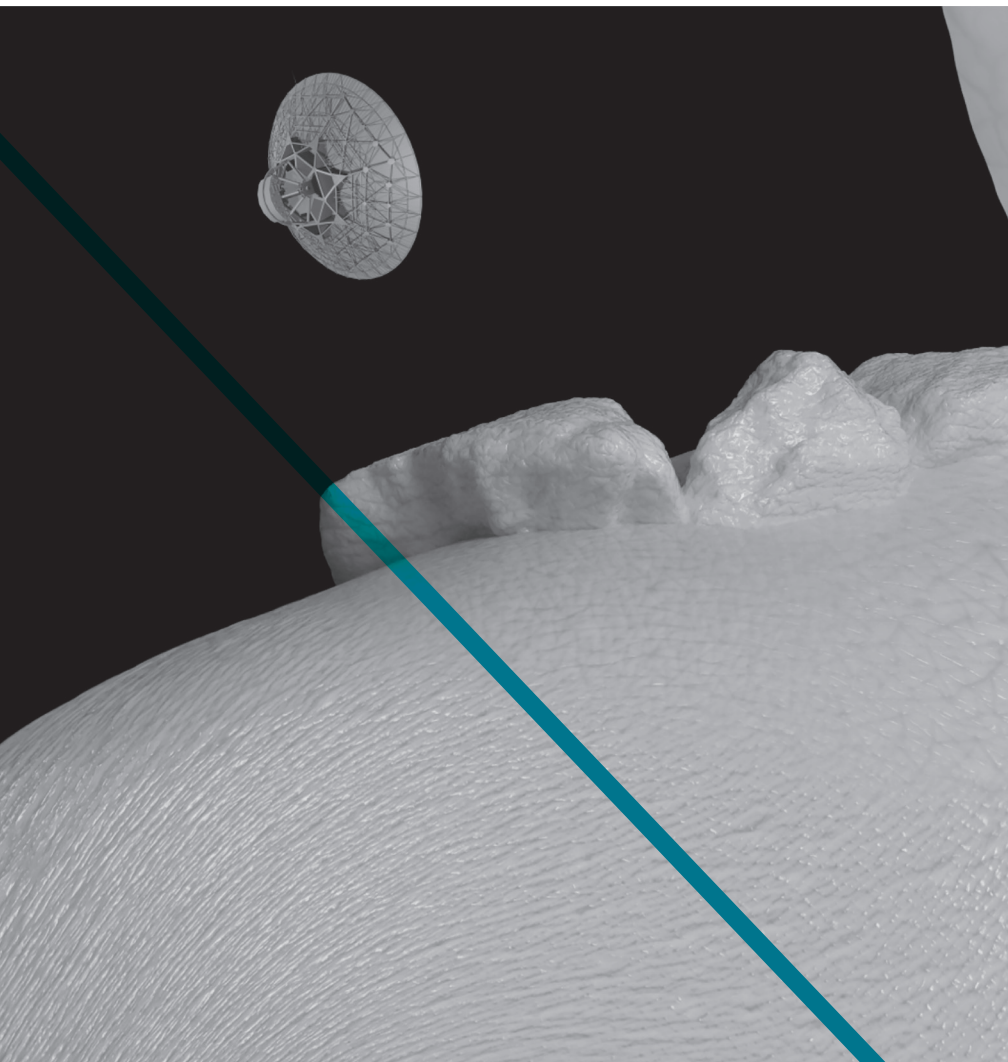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식지
2023년 2월호

변위

방법이 되는 변위

변위 displacement는 위치의 변화로 발생한 차이값을 의미하는 물리학 개념이다. 여기서 위치와 변화가 지시하는 값은 측정 대상의 이동만이 아니라, 물리적 변동이나 진동으로 생겨난 좌표의 변화까지 아우른다. 이처럼 복합적인 물리학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는 예시문은 한 지점에서 출발해 다른 지점에 도착하며 생겨난 두 지점 간의 최단 거리(실제 이동거리가 아닌), 즉 위치 변화량이 바로 변위라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 단위 시간을 대입하면 속도가 계산된다는 응용으로 이어진다. 변위의 개념을 일상적인 범주에서 생각해보면 출퇴근 시간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양방향으로 교차하는 교통 수단은 물론 여러 이유로 국경을 건너는 온갖 종류의 물류나 선박 등을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모든 움직임의 시작과 끝을 거리로 산술하고 여기에 특정 범주와 기준을 대입해 측정할 수 있다면, 그 움직임의 변화량 즉 변위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변위값을 측정할 수 있는 범주와 기준은 사회, 정치, 종교, 경제, 인종, 성별, 문화, 언어처럼 현재 우리의 삶을 구분하거나 인지하게 하는 온갖 종류의 경계와 관련된다.

그런데 변위를 이동이 아닌 방식으로 생각하는데에는 조금 다른 차원의 상상력이 요구된다. 측정 대상의 물리적 상태나 범위가 이동과 무관하게 달라지는 위치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나 추상적 범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건축에서 구조적인 상황과 맞물린 공간의 변위도 있을테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체에 생겨나는 변화의 사례들 또한 무수히 많다. 수돗물에 불순물이 섞여 나오거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은 피부나 기관지처럼 인체에서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몸의 진동에 관한 신호가 된다. 경미한 지진때문에 멀미를 느낄수도 있고, 늦은 밤 층간 소음이나 길 건너 새로 짓는 건물 공사 소음으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경험도 이동이 아닌 변위를 가능하게 하는 몸의 신호이고 변화의 반응이다. 측정 대상이 사람이 아닌 생명체인 경우 개체수의 변화나 유전체의 변이처럼 특정 변화의 결과를 토대로 그 원인을 찾고 변위의 출발점을 역산하게 된다.

지난 12월에 있었던 사전프로그램에서 진행된 여러 이야기 중 우리는 이러한 변위의 개념을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작가 최찬숙은 이주자의 몸에 각인된 떠나온 장소의 기억, 지나간 역사를 현재로 살아가는 여러 존재들, 죽은 자의 몸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잇는 신체의 개념, 그리고 몸에 각인되는 온갖 종류의 정보값으로 그릴 수 있는 또 다른 지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최찬숙의 작품에서 변위라는 개념은 현실 세계에서 몸에 새겨진 물리적 이동과 사회적 위치의 변화, 자연 자원의 채굴을 둘러싼 풍경의 도상, 이것을 예술이라는 가상의 세계에서 몸을 통해 경험하며 전달되는 소통까지 아우른다. 여기에서 몸은 인간, 자연, 비인간 혹은 탈인간의 관점을 수평으로 관통하는 코퍼스 copus다. 이것을 지각하게 하는 개념이 코퍼리얼 corporeal, 바로 신체성이다. 그리고 작가는 이러한 신체적 경험을 온갖 사연 때문에 국경을 가로지르는 이주자, 공공의 의무와 사적 이기심이 충돌하는 협상의 공간,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교차하는 역사적 존재나 죽은 몸의 소유를 둘러싼 다른 방식의 주장들과 연결짓는다.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변위의 채널들은 오늘날의 세계를 판단하는 여러 가치가 서 있는 토대를 드러내고, 되묻는다. 무엇이 진짜인지.

한편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연구자 니샤트 아완은 변위의 개념을 지렛대 삼아 디아스포라를 인식하는 기존의 관념이나 조건을 거꾸로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 디아스포라 라는 주제는,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문제는 주로 남반구 국가 어딘가에서 출발해서 주로 유럽 영토의 어딘가에 도착하는 사람의 움직임과 삶의 조건을 둘러싼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대개 식민주의, 제국주의, 인종주의, 냉전과 근대화, 신자유주의와 같은 기존의 이념과 관념에서 형성된 사고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니샤트는 이 문제를 이동의 끝점이 아닌 이동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 그 저변에서 벌어지는 변위를 포착하자고 제안한다. 그러니까 이동이 아닌 변위를 살펴보는 것이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산업화와 도시 개발로 인한 환경의 변화, 먹고살 길을 찾아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거래, 국가의 경계 주변으로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한 복수의 역할들은 삶의 방식에서 변화를 통해 이동 없는 변위를 드러낸다. 이동이 아닌 변위의 실제값을 온전히 측정하고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습적이지 않은 가치관과 관념을 주목하고 인간을 벗어난 관점을 촉구해야 한다. 인간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사고의 방식은 우리의 상상력을 옳아 맨 진짜 경계를 풀 수 있는 힘이 된다.



↑ (좌) 최찬숙, <it leaks> 스틸, 2022

단채널 비디오, 1분

작가 제공

(우) 니샤트 아완, 크레시다 코시옌스키, <이주 이야기 프로젝트> 중

‘아프가니스탄에서 유럽으로 이동한 우크라이나 오데사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그리는 지도’, 2016

니샤트 아완 제공

한국 땅, 외국, 장소들

고용노동부의 고용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이주노동자는 2022년 11월 기준 약 37만 명이다. 이 숫자는 강원도 원주시의 인구(약 36만 명)에 준하고, 이 숫자의 약 40%가 경기도에 체류하며, 이 숫자의 60% 이상이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에서 왔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숫자는 그 숫자에 준하는 지역이나 국가의 테두리를 연상시킨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를 숫자와 국경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기억하는 것이 이주노동자를 정확하게 아는 길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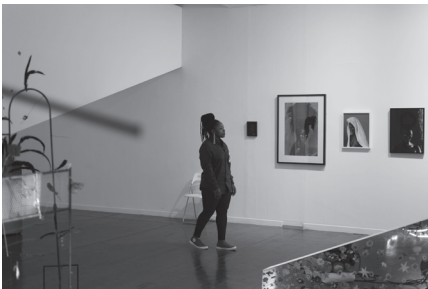
도시의 주변부 커뮤니티와 난민을 둘러싼 공간 재현을 연구하는 니샤트 아완은 제12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전프로그램 II 《테라인포밍》에서 〈변위의 건축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니샤트는 지도술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식민주의와 모종의 관계를 맺는다고 보았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점선면으로 구성된 명백한 지도만으로는 이주노동자들과 난민들이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 기후위기가 이들의 이동을 어떻게 촉진시키는지, 이들이 머무는 도시에서 무엇을 형성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숫자를 통해 국가, 도시, 지역의 테두리를 떠올리기만 한다면, 이들 숫자는 결국 이 테두리 내로 흡수되어 버릴 따름이다. 더군다나 국경이라는 테두리는 식민주의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국경은 분명 지정학적 압력과 충돌이 빈번한 전선이기도 하지만, 이 테두리 위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이동과 교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소는 경계를 따라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무화시키듯이 그 위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바로 이 교환, 지정학적 경계를 용해시키는 이주노동자들의 교환은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작업에서도 꾸준히 보여졌다.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에서는 구수현 작가가 선보인 작업 〈관람시간〉(2016) 안에서 이 교환을 살펴볼 수 있다. 〈관람시간〉은 작가가 경기도 안산의 한 용역회사에 찾아가 비엔날레 전시장 지킴이로 근무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교육시키고 일하게 하는 일종의 퍼포먼스 작업이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인 안산에서 한 취재원은 행인으로부터 “그곳은 한국땅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외국이랑 다를 바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관계는 동향사람들과의 문화적 커뮤니티와 더불어 일시적인 고용관계를 통한 경제활동으로 양분된다. 이들의 활동이 “한국땅”이라는 국토의 개념과 경계의 개념을 “외국”으로 교란시키는 저변에는 이들의 교환활동이 깔려있는데, 구수현은 바로 이 지점을 〈관람시간〉을 통해 미술관이라는 공간 안에서 재현하고 지도로 볼 수 없는 장소를 구축하였다.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좋은 삶》의 도록 속 아티스트 콜렉티브 믹스라이스의 작업노트에서도 이 교환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오백명의 남자와 게임 그리고 경품〉(2018)이라는 작품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마석단지에 거주하는 500여 명의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1999년 자체적으로 개최한 잔치를 소개한다. 수백 명의 사람들은 단돈 10만 원으로 “한국땅” 안에서 지도에 없는 “외국”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교환에 대한 재현은 우리로 하여금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 안에 편입되고 녹아들어서 기꺼이 지도를 완성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이 지도 상의 경계 위에

새로운 장을 상상하게 만드는 동력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게 한다.

니샤트가 〈변위의 건축들〉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계는 “도시와 국가 너머의 하나의 장소”이며, 이주노동자들은 이 장소를 만들어가는 주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들의 숫자를 비슷한 규모의 인구를 가진 지역과 비교하고, 체류 지역의 형태를 분류하고, 출신지역을 상기시키는 지표로만 사용하는 등 하나의 경계로만 끌어들이다면, 우리는 지도 너머의 지도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경계를 흐트러뜨리는 교환은 이주노동자들의 욕망을 바라보게 하고, 이 욕망이 이미 구획된 세계, 지도상의 세계 안에서 어떻게 휩쓸려가고 소외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소를 만들어어나가는 동력으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구수현의 작업과 믹스라이스의 작업은 각각 전시장 속 역학관계와 마석단지의 방글라데시 커뮤니티를 비집고 들어가 그 안에서 발생하는 교환을 재현한다. 그리고 이 재현은 “한국땅”과 “외국”으로 구성된, 우리에게 익숙한 지도적 관점만으로 감각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를 새롭게 감각하게 만든다.



↑ (좌) 구수현, 〈관람시간〉, 2016

퍼포먼스

퍼포머: 레베카 비루기, 사 딕, 알리 알닌, 알린 파이타렌, 이사 센온가

2016 미술주간 협력

서울시립미술관 소장(기록영상)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퍼포먼스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16

(우) 믹스라이스, 〈오백 명의 남자들과 게임 그리고 경품: 면봉 한 봉지, 냅킨 한 봉지, 볼펜 한 자루, 설탕 1kg짜리 한 봉지, 액자, 소금1kg 한 봉지, 감자 한 봉지〉, 2018

단채널 비디오, 사운드, 라이트 패널 3개, 가변 크기, 7분 40초, 45×60cm(패널)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전경, 2018

물리적 이동에서 감각의 이동으로

모빌리티라는 화두가 계속된다. 이동 제한이 해제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이 논의는 점점 활발해지는 듯 하다. 자율주행차량을 로보택시와 카셰어링 서비스에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드론은 물류 배송에까지 영향력을 미친다. ‘친환경’ 또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날개까지 단 이 개념은 자동차 공유 서비스, 탄소 저감 자동차를 넘어 자동차 없는 도시 car-free city를 꿈꾼다. 그것은 이동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동시에, 이동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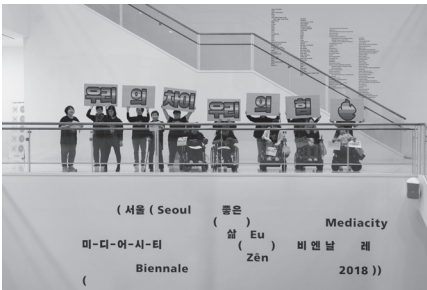
아침마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는 계속되고, 2023년 2월부터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은 천원이 더 오를 것이다. 이동권은 헌법적 기본권 중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안전한 이동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그러나 권리에 대한 동등한 보장은 차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같은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모든 주체가 이동에 있어 동일하게 자유롭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동권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가의 노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은 즉 모빌리티에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를 접합하려면 그 노력의 여하를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는 여러 에디션들을 거치며 이동과 변위의 위상에 대한 작업을 몇 가지 선보인 바 있다. 2018년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좋은 삶》에 소개된 리슨투더시티의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2018)는 비엔날레 커미션으로 제작된 워크숍과 출판물 및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구성된 작업이다. 워크숍의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포항과 경주에서 발생했던 지진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서울에 큰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다. (고층 건물에 사는 휠체어 이용자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인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대응 방식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의 설정은 사각지대에 놓여진 타인의 삶을 순간적으로 가시화하며, 동일한 상황에 주어진 불균형의 상태를 보다 면밀하게 다각적인 방식으로 드러낸다.

같은 에디션에서 소개된 〈마침, 좋은 삶〉(2018)은 장애여성공감의 무용극단 ‘춤추는 허리’가 제작한 퍼포먼스 작품이다. 미술관을 배경으로 3일동안 진행된 이 퍼포먼스는, 공간 속의 불완전한 신체의 현전만으로 몸과 정상성, 공적 공간과 소수자의 관계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제기했다. 불특정 다수의 관객 앞에서 불안한 제스처와 발음, 목소리, 떨리는 호흡을 그대로 내보이는 순간은 퍼포먼스라는 예술적 형식에 대한 기대를 배반하는 불화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식과 감각을 새롭게 위치 짓는다. 여기에서 몸은 어떤 시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여짐을 택함으로써 정치적인 행동이 되고 예술이 되는 몸이다. 이 때 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배제에서 포용으로 이동한다.

휠체어가 이동할 수 없도록 엘리베이터를 봉쇄하는 것, 시위가 발생한 지하철 역에 멈추지 않고 통과하는 것.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는 이러한 미봉책은,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 위에 다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을 덧씌움으로써 존재가 희미했던 이들을 더 또렷하게 보이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모빌리티는 그 시선과 시각의 변화에서 시작될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모빌리티에 대한 문제는 결국 우리의 공감과 이해의 이동에 대한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예술은 하나의 매개체로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에 초청된 앨리스 셰퍼드는 휠체어를 타고 춤을 추는 장애인 무용가이다. 그는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앞마당에 설치된 사라 핸드렌의 작품 〈끼어든 경사로〉(2016) 위에서 휠체어를 이용한 무용 퍼포먼스 〈탄력을 받은〉(2016)을 선보였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퍼포먼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휠체어는 이동 수단도 아니고 저를 보완해 주는 도구도 아니에요. 그것은 제 몸의 일부예요. 그리고 아름답죠.”



- ↑ (좌) 장애인성공감 극단 춤추는 허리 〈마침, 좋은 삶〉, 2018.10.3-5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퍼포먼스, 480분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커미션
서울시립미술관 프로그램 전경, 2018
- (우) 앨리스 셰퍼드 〈탄력을 받은〉, 2016.9.4
퍼포먼스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서울시립미술관 앞마당, 2016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SEOUL MEDIACITY BIENNALE

발행처 서울시립미술관
발행인 백지숙
글, 편집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디자인 마바사(안마노, 김지섭)
인쇄, 제작 세걸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식지 온라인 구독은
아래 QR코드로 신청해주세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중구 덕수궁길 61
contact@mediacityseoul.kr
mediacityseoul.kr



↑ 최찬숙, 〈qbit to adam〉 스틸, 2022
작가 제공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식지
2월호 『변위』

방법이 되는 변위
한국 땅, 외국, 장소들
물리적 이동에서 감각의 이동으로

최찬숙, 〈qbit to adam〉스틸, 2022
작가 제공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SEOUL MEDIA CITY BIENNALE

서울시립미술관
SEOUL MUSEUM
OF ART